

## ‘대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광주·전주로 확산

광주 33번, 전북 24번 확진자와 대학 동기

“사각지대 없도록 동선 면밀히 들여다 볼 것”

대전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이 광주와 전북 전주까지 확산했다.

21일 전북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대전 50,55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전주 신시가지 음식점(청년다방)에서 식사를 한 광주 33번 확진자 A씨(20)에 이어, 대학 동기인 B씨(22·여)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 50번, 55번 확진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 정도 전주 신시가지 소재 한 건물 6층의 방문판매설명회에 참석한 후 오후 5시15분부터 44분까지 건물 1층 청년다방에서 식사를 했다.

당시 같은 시간대 여고 3학년 C양(전북 22번)과 광주 33번 확진자도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같은 곳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 B씨는 해당 식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20일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날 B씨도 익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청년다방에서 식사를 한 A씨는 18일부터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

다. 이후 ‘무궁화호 1463열차’를 타고 19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에 도착해 ‘진월 07’ 버스를 타고 북구의 ‘이안PC카페’로 이동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7시에 도보로 일곡동의 자택으로 귀가했고 오후 1시30분쯤 일곡동 편의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걸어서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보호자의 차를 이용해 북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진행했고 오후 9시22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완주군 삼례읍 A씨의 거주지(자취)에 함께 있었다.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A씨 등 조원 3명과 함께 대학교 강의실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했다. 다른 조원 2명은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조별 과제 수행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삼례의 한 카페를 방문했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인근 코인노래방을 찾았다.

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익산



코로나 확산을 막아라

대전지역 방문판매 업체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등동 소재 한 카페도 방문했다.

20일에는 익산 자택에 머물렀으며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두통, 발열 등의 이상 증세에 따라 오후 9시 익산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종 확진 시간은 21일 새벽 1시15분이다. B씨는 현재 전북대병

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A씨의 가족 2명, B씨의 가족 3명과 일부 접촉이 있던 이모, 이종사촌 동생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2차 감염

(추정)과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우려되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 “대전 방판 발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도록 동선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무안군 “한달간 ‘낙지 금어기’”

식당 낙지 판매는 허용돼

무안군은 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 동안 낙지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은 낙지금어기 기간에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 지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시 등으로 낙지금어기를 홍보 중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특히 금어기 조기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주낙, 통발, 맨손 어업)와 육상에서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유관기관들이 강력히 단속한다.

금어기 기간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낙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무안낙지골목은 금어기 기간에 계속 영업하고 망운낙지직판장은 6월29일부터 7월 20일까지 문을 닫는다.

### 광주서 내달 10일 상생일자리박람회...온라인 방식 진행

오늘부터 7월7일까지 인근지역 포함 참여기업 40개 모집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시장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7월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상생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상생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일자리 유관기관이 함께 한다.

시는 공식운영사이트를 통해 22일부터 7월7일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 장성 등 인근지역을 포함해 우수기업, 명품강소기업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구직자는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7월8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면접은 기업 형편에 따라 화상면접과 비화상면접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상면접은 박람회 행사일인 7월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의 방문시간대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나눠 진행한다.

구직자들은 광주상생일자리박람회장에서 화상으로 자신이 지원한 기업과 면접을 진행한다.

화상면접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해 비화상면접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박람회로 변경해 지난 5~6월 2회에 걸쳐 열고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다양한 분야와 업종의 일자리를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일자리박람회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